

'희망있는 장학지원' 나눔 실천 지속

국민연금공단, 올해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 장학금 3억1500만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적합한 사회적

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수와 장학금을 284명, 3억15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이달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손)자녀로서 중·고등

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 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주간 중 3주간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새소식'을 참고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희망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총 378명에게 5억39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본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서 적합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 연금수급자 및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현재의 연금수급세대와 미래의 연금수급세대 모두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레일 전복분부

추석 승차권 오는 20~21일 예매

코레일 전복분부(본부장 김광모)는 올 추석 승차권을 20일과 21일 이틀간 온라인(PC·모바일)과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밝혔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기존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특히, 올해에는 예매를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전 8시로 1시간 단축했다. 예매 대상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6일 오전 0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 추석부터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명절 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접속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다. 꾸준히 높아지는 온라인 예매 선호도를 반영해 인터넷에 80% 역 및 판매 대리점에 20%를 배정했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모바일 예매로 출근길이나 이동 중 어디서든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6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스타항공 바둑단과 함께 하는 바둑교실'

이스타항공, 11~13세 어린이 40여명 초청

우수 참가자 4명, 인천-상하이 왕복 항공권 각 3장씩 증정

이스타항공이 지난 3일 영등포청 소년문화회집 대강당에서 이스타항공 바둑단과 함께 하는 바둑교실을 열었다.

바둑교실은 이스타항공 바둑단과 영등포청소년문화회집이 함께 비주류 스포츠인 바둑을 알리기 위해 바둑에 관심이 있는 11~13세 어린이 40여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바둑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이스타항공 바둑단 선수들의 바둑 지도를 비롯해 바둑과 관련된 골든벨 퀴즈, 친구와 바둑 겨루기, 바둑알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둑교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특별히 상하이 신규 취항을 기념해 우수 참가자 4명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인천-상하이 왕복 항공권 각 3장씩을 증정했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의 류승희 선



이스타항공이 지난 3일 영등포청소년문화회집 대강당에서 이스타항공 바둑단과 함께 하는 바둑교실을 열었다.

수는 "이스타항공 바둑단의 첫 번째 바둑교실로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바둑을 알릴 수 있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누구나 부담 없는 항공 여행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노력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둑을 즐길 수 있도록 바둑단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국내 첫 실업바둑팀 '이스타항공 바둑단'을 창단하며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후원하고 선수 육성과 함께 바둑 문화권 대상으로 항공과 바둑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중앙본부 정례조회서 다수의 상 수상 쾌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5일 중앙본부 정례조회에서 전북의 범농협 임직원이 이달의 자랑스러운 농협인상, 총화상, 사업추진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달의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은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이달의 자랑

스러운 농협인상은 이상연 전주집계 완주축협 본부장, 창립기념 총화상은 전북혁신도시지점(지점장 진기영),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이 수상했다.

사업추진우수상 중 지도사업종합평가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 쌀생산조성제 강화는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영농인력 집중 지원은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 지자체협력사업 우수는 장계농협(조합장 광점용)이 각각 수상했다.

또 숲은 일군산에 유재성 익산원예농협 과장, 논타작물재배추진 우수에 최기현 김제시지부장, 무허가축사적 법화추진우수에 조인갑 군산시지부장이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 농식품, 몽골 진출 본격화

aT, 울란바토르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 운영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몽골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8회 한·몽 우수기업제품 및 농수산식품 전시회'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홍보관에는 20여개 수출업체의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몽골 현지 셰프가 진행한 수출제품 활용 쿠킹쇼도 선보였다. 불고기 소스, 마요네즈 등 한국의 소스류를 활용해 현지 입맛에 맞게 조리한 고기요리와 신선과일을 활용한 화채 등은 행사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수출유망품목 중의 하나인 라면은 행사기간 중 현지 바이어와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지 프리미엄마켓과 내년까지 200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몽골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국식당이 100여개 운영될 정도다. 한류 콘텐츠가



한·몽 우수기업제품 및 농수산식품 전시회

인기를 끌면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제육볶음, 삼겹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반도 신규 항공사 취항에 따라 우리나라와 몽골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aT 신현권 수출이사는 "몽골은 신북방 주요국가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농식품 수출실적이 매년 20% 가까이 증가했다"며 "aT몽골 사무소에서 유력 바이어 발굴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수출업체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니 신규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수출업체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수험생 뇌를 깨우는 약초와 버섯'

농진청 '원지·인삼·노루궁뎅이버섯 집중력 향상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5일 대학 수험생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험 준비와 더위로 지친 수험생의 기력을 채우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초와 버섯을 추천했다.

먼저, 총명탕의 주요 약재인 '원지'는 수험생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약초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지는 뇌 신경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보감에서도 원지는 지혜를 더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는 약재로 기록돼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건망증을 치료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정신을 흐려지지 않게 한다고 전한다. 원지는 손질 후 그대로 우려내거나 달여 마셔도 되고, 갈아서 분말 형태로 간편하게 요리에 넣어 먹어도 된다.

'인삼'은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을 포함해 다양한 유용물질을 함

유한 약초다. 뇌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버섯 중에서는 '노루궁뎅이버섯'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노루궁뎅이버섯은 면역, 항암, 항염증, 항균 활성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신경세포 증식인자(Nerve growth factor, NGF)의 합성을 촉진하는 헤리세닌과 에리나신이 뇌를 활성화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장재기 과장은 "약초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차, 음료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수험생의 기력을 보강하고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다만 효능과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체질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이중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